제 2 회 이사회 개최

지난 2월28일(월요일) 오후2시 본회 회의실에서 77년 제2회 이사회가 이사진 다수분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개회사에 이어 오 세정 회장은 회장인사에서 이렇게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이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일부 독지가들의 혜택으로 회의실을 확장 하고 시설을 보강하며, 또한 검정소를 대폭확장, 보완 하게되었다고 감사의 인사를 했다.

다음, 노영한 사무국장으로 부터 업무보고가 있은다음부의 안건 토의에 들어 갔다.

① 닭 예방약 알선사업 추진건 : 이영목 이사의 제안에 의하여 협회 사업으로서 닭 예방약 알선방안과품질향상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박근식이사의 보충설명이 있었다.

② 주보발행 : 전국이 1일 생활권으로 들어섬에 따라 국내외 동향을 정확하고신속하게정보를 파악 알려줌으로서 생산물의 유리한 판매, 긴급한 방역, 정부시책 협력사항등을 주시시켜주는 목적으로 꼭 발행되야 한다고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앞으로 구독회비제로 하여 제작비는 구독회원이 부담토록 한다.

③ 양계 강습회 유료화 : 회원에게는 무료로 하고 비회원에게는 500원을 납부토록하므로서 회원에게 혜택을 주도록 결의

④ 신가입회원 승인 : 16명입회승인

⑤77년도 추경예산안 통과.

⑥ 도지부 분회규정 승인

(별지 내용 참조)

⑦ 계란의 항생물질 검출건 :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빠른시일내에 방안을강구하도록 함

⑧ 기타 사항 : 회비 미납회원에게 납부를 촉구. 불량추 단속 강화에 대한 대책이 토의 되었다.

분회규정(안)

제1조(목 적)

본 규정은 지부규정 제3조(분회에 의거 지부내의 각지역별 또는 양계 단지별로 분회를 두고 분회 회원 상호 협력으로 지역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조직의 강화 업무의 정확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 역)

본회는 지부내의 사정에 따라 지부장이 지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지역별, 또는 양계단지별로 설치하고 지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 한 지역의 분회는 본회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다.

제3조(설립과 인가)

1. 분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지역 내 회원 1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 준비회를 개최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지부장은 분회를 승인한 후에는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분회 인가를 받고져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설립 취지서
나. 정 관
다. 창립 총회 회의록
라. 임원의 이력서(사진 첨부)
마. 임원의 취임 승락서
바. 임원의 신원 증명서
사.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마. 사무소의 주소와 그의 약도

제4조(정관 기재사항)

분회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칭과 구성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임원의 임명에 관한 규정
6. 회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와 해산 사유를 정하는 때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5조(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은 본회 정관 제5조의 규정과 같다

제6조(재정 및 회계)

분회의 재정 및 회계는 지부규정 제8조(재정 및 회계)에 준하되 입회비 및 회비 처리는 소속된 지부와 지부가 없는 지역의 분회는 본회의 지시에 따른다.

제7조(지도 감독)

1. 지부장은 분회를 지도하며 필요한 지시를

할수 있다.

2. 지부장은 전항의 직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분회를 감독하게 할수 있다.

제8조(부 칙)

본 규정은 본회 이사회 통과 일로 부터 시행한다.

지 부 규 정 중 개 정(안)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2조(지역) 지부는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및 각도에 설치 할수 있다. 단, 필요에 따라 2개 지역이 통합 설치 할수 있다.	제2조(지역) 지부는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및 각도에 설치 할수 있다. 단, 필요에 따라 2개 지역이 통합 설치할 수 있으며 지부가 설치 되지 않은 지역에 한하여 본회에서 그 업무를 관장한다. 제3조(분회) 지부에는 지역별 양계 단지별로 분회를 설치 할수 있다. (1) 분회의 설립과 인가 운영에 대하여는 별도 분회 규정에 의한다.	지부가 없는 곳의 업무를 본회에서 관장함.
제8조(재정 및 회계) 1. 지부의 재정은 입회비, 회비, 보조금, 찬조금, 알선수수료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8조(재정 및 회계) 1. 지부의 재정은 입회비, 회비, 보조금 찬조금, 알선수수료 및 기타수입 으로 충당하되 입회비 및 회비는 분회에 준한다. 단, 입회비, 회비의 징수 결과를 본회에 보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현재 분회 규정이 명확치 않아 조항을 신설 코저함.
제9조(회장의 지도감독) 1. 회장은 본 규정 이정 하는 외에 지부를 지도하며 지도상 필요한 규정과 지시를 할수 있다. 2. 회장은 전항의 직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지부를 감독하게 할수있다.	제9조(회장의 지도감독) 1. 회장은 본 규정이 정하는 외에 지부를 지도하며 지도상 필요한 규정과 지시를 한다. 2. 회장은 전항의 직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지부를 감독하게 한다	각도지부의 입회비 및 회비 금액이 구구하며 지역의 형편이 각기 다르므로 분회에 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지부에 대한 본회의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조직 을 공고하고 저함.

시판계란에서의 항생물질 검출에 대한 긴급 간담회 개최

지난 2월24일 본회 사무실에서 2월22일자 한국일보 7단기사로 게재된바 있는 "시판계란에서의 항생물질 검출"이란 제목으로 부산대학 S교수의 논문이 보도됨에 이 논문이 국민보건과 우리나라 축산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감안하여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협회는 양계협 제 100호 및 제101호로 동대학 총장과 서명자교수 앞으로 조사 연구 논문사본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분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오세정(본회회장, 건국대학교 교수)
윤경중(본회 부회장, 서울 부화장대표)
노영한(본회 사무국장)
이희구(동물약품협회 전무)
권항기(사료협회 기획과장)
정운용(유한양행 농축부 차장)
김종상(한국화이자 농축부 차장)
하낙순(퓨리나사료, 기술지도부장)

간담회 내용은 본문 22페이지 참조)

계란식품 위생에 관한 협의회 개최

「시판계란중 항생물질 검출」이라는 신문기사로 인한 계란의 급격한 소비위축이 전국의 채란업계와 소비자에게 미친 영향이 실로 막대함에 본 협회는 양계인 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3월4일 긴급대책의 일환으로 계란 식품위생에 관한 협의회를 열어 문제 논문의 타당성여부와 문제점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2시부터 3시간에 걸쳐 진행 되었는데 이자리에는 본 협회의 오세정회장과 노영한 총무국 장을 비롯한 각계 연구진 10명이 참석하였는데 명단은 다음과 같다.

참석자 : 김춘수(한국과학기술연구소) 모수미(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식품영양학과장) 박조식(농업진흥청 가축 위생염구소 계역과장) 송철(국립보건연구원 식품제1과장) 신광순(대한 보건 협회 부회장) 오봉국(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축산학과교수)이계호(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식품공학담당교수) 이재근(고려대학교 농대 축산학과교수) 정길택(서울대학교 수의대 공중위생 담당교수)최창해(본 협회 이사)이날 논의된내용은 계란의 영양적가치, 문제논

문검토, 대책 논의 등의 중점을 이루었는데 이날의 토의결과 얻어진 결론은 다음「해설」과 같다.

◎ 해 설 ◎

1. 논문 검토 내용(종합의견)

가. S교수의 논문을 검토한 바 계란에 함유된 항생물질의 검출방법이 최상의 방법이 아니며 항생제 잔유량에 대한 정확한 측정없이 계란이 유해식품이라고 지적한 사실과 S교수가 인용한 문헌중 계란에 대해서 유해식품으로 지적되어 있지않음에도 불구하고 유해한 듯이 발표한 것은 독자로 하여금 오해를 갖도록 기술되어 있다. 특히 인용문헌중 주목할 사항은 계란외의 식품에 대한 항생물질의 유해성을 마치 계란이 유해한것 같이 인용되어 있다.

나. S교수의 논문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인다해도 이것을 검토하면 1일1인당 계란 한개를 소비한다고 하더라도 (년간 365개 소비) 항생 S교수의 논문의 결과로 풀이하면 계란50g 중 물질의 잔유량은 불과 1000,000분의 1g 밖에 되지 않아 계란을 매일 먹는다고 했을지라도 전혀 염려할 바 못된다.

2. 계란의 항생물질의 잔유량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논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 현재까지의 연구 조사된 바에 의하면

(1)닭의 영양과 생리(須藤浩 1969)

(2)Theuse of drugs in Animal feeds(National-Acadomy Science 1969)

(3)일본 가금학회지 (10권 6호 1973.

吉田実외 5人 234~ 260페이지)

닭에게 항생제를 사료톤당 200g 을 투여하더라도 계란중에 항생물질의 잔유량이 검출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산란계 사료에 고가(高價)인 항생제를 별로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질병예방 치료용으로 사용할 경우라 하더라도 사료톤당 10~30g 범위를 상회하지 않으므로 전혀 계란중의 항생제 잔유량은 문제되지 않는다.

나. 미국연방보건성 식품및 의약품 관리국(FDA)에서도 사료에 첨가되는 항생제는 사료톤당50g까지는 허용하고 있으며

영국 Swann 보고에 의하면 사료톤당 100g 까지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다. 미국을 비롯하여 선진각국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산란계 사료에 항생제를 첨가하여 먹인 닭으로부터 생산된 계란내에 항생제 잔유량에 의한 인체에 유해하다는 보고는 한건도 없으며 여론조사조차 대두되고 있지 않다.

3. 본 회의에서는 이상과 같은 결론을 얻어 냈으며 우리나라의 년1인당 계란소비량이 불과80여개에 미치지 않는다는 실정에 있으므로더욱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러나 건전한 축산식품을 국민에게 공급하기 위하여는 앞으로 양축가들의 지나친 항생제 남용을 삼가하고 아울러 이러한 분야의 철저한 조사 연구가 이루어지므로서 소비자에게더욱 한치의 오해도 없게 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일부 몰지각한 매스콤에게도 내용의 재검토없이 이 논문내용을 수록하는 무책임하고, 불 성실한 자세는 하루 속히 시정해 줄것을 강력 하게 촉구했다

서명자 교수의 해명서 접수

신문에 "계란에 항생물질 검출"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파문을 던졌던 부산 대학교수인 서명자씨가 3월7일 본회 회장앞으로 해명서를 제출했다.

지난 3월7일 본회 오세정회장은 직접 부산으로 내려가 부산대학의 총장, 학장, 문제의 서명자 교수를 면담, 서교수로부터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켰음을 사과하는 내용의 해명서를 접수했다.

서교수의 **해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순수한 학문적 입장에서 상기 제목을 가지고 연구한 결과를 본인보다 선배인 석학들 에게 정보교환 및 지도를 받을 생각으로 마침 기회가 있어 1976년 4월경 세계교수아카데미회에 논문을 제출하고 사계의 학자들의 조언을 기다리고 있던 바 뜻밖에 1977년 2월22일 일간지에 본문에 실려 본의 아니게 사회에 물의를 야기할 뿐아니라 양계를 생업으로 하시는 회원 제위께 뜻밖의 피해를 드린데 대하여 심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귀회의 앞날에 보다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1977년 3월

사단법인 대한 양계협회귀하

서 명자

◆본회 항생물질검출실험실시및 매스콤을 통해 소비자에게 해명서 발표예정◆

본회에서는 과학적인 근거와 자료를 갖추므로서 앞으로 야기될지도 모를 "제2의 항생물질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항생물질검출실험에 착수할 계획이며 금명간 매스콤에 해명서를 게재하므로서 소비자들의 의혹을 씻어줄 계획이다.

양계강습회개최 예정

본회에서는 지난 2월3일 개최했던 제1회 강습회(세무중심)를 성황리에 끝 마치데 이어, 다시 오는 3월21일, 제2회 양계강습회를 다음 요령에 의하여 개최키로 하였는데 특히 76년도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방법과 요령을 중심으로 납세의무자인 회원을 위하여 해설하고 최근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방역대책과 양계산물의 유통개선방안등 중요한 문제점들에 관하여 권위자를 초빙 강의토록 하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관이 있기를 바란다.

일시 : 1977년 3월21(월) 10.00—17.00

장소 : 여성회관 강당(남대문 옆, 도큐호텔 건너편)

접수 : 당일 09,20—09,50(시간 엄수)교재는 **회원에 한하여 무료 배부, 비회원에게는 교재대 500원을 접수할 예정이다.** 또한 회원중 77년 회비 미납자에 대해 회비접수도 받을 예정이니 꼭히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강사 및 강의 내용

안승대(동부 세무서 개인 1계장) : 소득 금액에 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방법과 요령. 박근식(안양가축위생 연구소 계역과장) 최근 많이 발생되 고는 질병에 대한 방역대책

박영인(미국사료곡물협회 ,한국지부장)

양계산물의 유통개선 방안

제 12 회 산란계 능력검정 출품 접수완료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될 제12회 산란계 능력검정시험에 다음의 20개구의 출품신청이 완료 되었는데 협회 제2회 검정위원회에서는 이들 실용계가 계대가 가능한 순계로 부터 생산된 것인지 를 확인한 후 출품받기로 하였고 하자가 있는 것은 참고구로 처리키로 하였다.

77년도 12회 산란계 검정 출품신청현황

한협농장 : 한협 122호, 한협 177호, 한협325 호 한협 333호, 한협 353호

천호부화장 : 하이섹스 화이트, 천호백색

신촌가금부화장 : 신촌 1호, 신촌2호, 신촌3호

국립종축장 : 축시 742호, 축시 743호, 로드

미국하이라인 : 하이라인 백색, 하이라인 유색

이스라엘 : 야콘, 써니

한국카길 : 쎄이버

신기농장 : 신기 유색, 신기 백색, 이상 20구.

닭경제능력 검정소시설 및 인원보강

업계의 지대한 관심속에 매년 능력검정사업을실시해 오던 협회는 다음과 같이 검정소 시설을 대폭 강화하고 관리원 1명을 보강 하므로서 공신력을 더욱 높이도록 하였다.

그간 위탁부화에 의존하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독지회원 몇분의 찬조금으로 부화기를 5대 조립(발육기 2대 발생기 3대) 설치함으로서 1회에 24,000수를 동시 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그리고 부화기의 증설로 전의 부화실의 구조를 대폭확장 개축하였으며, 육추시설로 삿갓형 평사 육추로 바꾸고 육추사 내부시설을 정비, 대폭보완했다.

또한 산란검정사도 새계사에 새로 케이지를 구입키로 결정하고 독지회원의 찬조를 접수하는데로 산란케이지를 주문키로 하였다

부업양계가에게 납세번호부여문제를 당국과 협의중

본회에서는 양계의 농가부업 한계가 1,000수 이하로 됨에 따라 소규모 양계업자가 사료구입시 에 번호가 없어 많은 불편을 받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현재 재무부 당국과 납세자 번호 부여 문제를 계속 협의중에 있다.

본회 회의실 확장

본회에서는 앞으로 많은 강습회를 개최코져 본회 사무실의 회의실을 확장, 소규모, 모임이나 강습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책상 및 의자를 구입하였다.

각 분과 및 회원의 많은 이용이 있기를 바란다.

인천 부민단지 세미나 개최

인천 부민·문학단지 양계가들은 77. 3. 5 오후 3시부터 동암중학교(십정동 459)에서 부로일러에 대한 장래성 및 각종 질병에 대한 예방, 치료 및 처리문제에 대하여 세미나를 가졌다. 강사는 가축위생연구소 박근식과장이였으며 많은 인근 양계가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신가입 회원명단

서울 : 여영옥, 윤윤학, 우춘식, 황석규, 한운도, 조만옥

경기 : 전태희, 차철윤, 민완기, 박희정, 최홍균 현근주, 김장식.

강원 : 조정연, 홍종철, 최하길

충남 : 송영찬, 이상철

충북 : 김낙구

알 림

육계분과위원회 소집 14일 오후 2시

3월14일 오후2시 본회 회의실에서 육계분과위원회가 소집되오니 각 단지장들은 필히 참석 바람이다.

(회의내용) 육계유통 및 가격협의

— 대한양계협회장 —

질병 만연경보!

★전국 각지에 작년부터 만연되고 있는 뉴캣슬이 아직도 머리를 숙이지 않고 있어 많은 양계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예방프로그램은 월간양계지 2월호 48페이지를 참조)

★요즘 콕시듐병이 전국적으로 상재화되고 있다. 예방은 첫째가 소독으로 소독약으로 올소제가 가장 유효 하며 소독약의 온도를 높이면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다.

예방으로는 여러가지가 개발되어 있으나 발병전에 효과가 있을 뿐이다.

치료 : 한마리라도 발병했을 때는 그 계군은 전체적으로 감염된 것으로 간주하여 설파제를 3~5일간 투여하며 부작용이 있으므로 약의 농도를 높이거나 장기간 투여해서는 안된다.

회원을 위한 상담실 개설

본회에서는 전국회원의 지위향상과 권익 보호의식을 앙양하고 생산자 주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본회에 회원들을 위한 상담실을 개설하였으니 회원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사항의 내용을 편지, 엽서, 전화, 방문 상담을 할 것을 바라며 보내주시는 분의 주소 및 연락처를 명시하여보내 주시면, 그에 해답을 해드리는데, 최대한의 협조를 아끼지 않겠으니 많이 이용해 주십시요.

내용

1. 세무상담
2. 양계업 종사중 억울한 일
3. 시정해야 할 일
4. 업계를 위한 발언
5. 사양관리 문의
6. 질병위생 문의
7. 협회발전 및 회원복지를 위한 아이디어
8. 기타 사항

주소 : 서울 중구 양동 44-28(22-3571-2,6917) 지도조사부

불량추 생산 금지사항

—3월초부터 강력단속에 임할 방침—

정부는 작년 12월22일 법률 제 2910호로 양계산업의 발전을 기하고 양계인의 권익을 옹호하며 정확한 통계로 수급조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부화업을 허가제로 종계업을 등록제로 하여 77년 3월 23일부터 강력한 통제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에 있다.

개정된 현행법에 의하면 부화를 허가없이 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벌금과 종계업을 등록하지 않고 할 경우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농수산부는 각도 식산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불량추생산업자에 대한 단속 방안을 협의 하고 다음의 여러가지 행위를 금할 것을 권고하며불미스러운 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강력한 통제와 단속을 철저히 할 것을 본회에 강력히 시달하였다.

(1) 종계 확인을 받지 않고 부화를 하는 행위

(2) 일부극소수만 종계확인을 받고 불량추를 생산하는 행위

(3) 초생추를 혼합 판매하는 행위

(4) 종계의 배웅을 (인공 수정 포함) 고의로 바꾸는 행위등이다.

아직 등록을 필하지 않은 종계장 허가를 받지 않은 부화장은 빠른 시일안에 등록과 허가를 완료할 것을 촉구한다.

초생추 생산실적 및 계획 통보 요망

지난 2월10일 농수산부 축산 1162~232로 하달된 내용은 다음과 같기에 관련 회원은 필히 본회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

앞으로 종계수급계획은 물론 양계산물의 수급조정을 기하기 위하여 허가된 부화장에 대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초생추 생산계획 및 실적을 월별로 파악 보고하도록 함.

4월말까지 76년도분 축산사업 소득세 납부하도록

지난해 축산법이 개정됨에 따라 양축가들도 세금을 내게 되었는데 그 납부기간이 3월20일 에서 4월말까지이다.

신고를 할 때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자진납부 계산서와 과세표준 확정신고소득 금액 계산명세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장해자공제의 공제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소득공제 명세서 (주민등록 등본)
2. (종합, 퇴직, 양도)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기초가 되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
3. 복식기장 의무자의 경우 제무제표 규칙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합계잔액 시산표와 그 부속서류.
4. 필요경비 또는 수입금액 산입 명세서.
5. 소득세의 감면을 받는 때에는 감면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
6. 공동소유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소득분배 계산서.
7. 이월 결손금을 필요 경비에 산입한 경우 이월결손금명세서.
8.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된 소득자의 주소, 성명과 자산소득을 명시한 명세서.

그러나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한다. (자세한 것은 월간양계 77년도 1월호 105페이지를 참조)

연천분회 현판식 성료

지난 2월15일 경기도 연천군 전곡면 전곡리에 위치한 전곡예식장에서는 각계인사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연천분회 (회장 : 최태식) 현판식이 성대히 거행되었다.

연천분회는 유통의 원활 및 회원복지를 위한 최선의 길은 단합뿐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여 작년8월 20여명의 양계인들이 창립 총회를 갖인 이래 금년 1월 10일 본회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연천분회 승인을 얻은 바 있다.

이날 현판식은 한일사료, 한일농원, 고창양계센타의 후원아래 식순에따라 경과보고, 감사패증정 및 시상 분회장의 인사가 있은다음 양계협회 오세정회장의 「상부상조의 정신과 유신도약의 정신으로 본회와의유대를 더욱 강화하여 우리의 단합의 힘을 마음껏 과시하자」라는 격려사와 연천군 부군수 오준석씨의 축사가 있었다.

제주도지부 총회 개최

지난 2월26일 제주도지부에서는 7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식순에 따라 감사보고와 76년도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 77년도 사업계획및 수지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관심을 집중시켰던 임원 개선은 고경무지부장을 비롯하여 모든 임원이 유임되었다. 이날 총회에 본회에서 회장대리로 노영한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양계강습회 비회원에게 유료화

지금까지 본회에서 시행하든 무료 계기 강습회를 앞으로는 지양하고 회원에게는 무료, 비회원에게는 유료강습회를 실시하여 강습회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회원들의 참여의식을 앙양시킬 계획이다.

76년도 년말 축산물보내기 운동

국군장병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토방위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위로하고저 76년도 년말 국군장병에게 축산물 운동을 편 본 양계협회에서는 7백70만원에 달하는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이러한 성의를 표시하여 주신 분들의 명단은 다음 과 같다. (2월호에서 계속)

경북지부 100,000개

이상윤	문창호	이영근	박덕환	이석봉	박송민
서정환	유종래	김진영	포지구	정문조	김 상
이상구	정덕용	김영일	이기섭	정상태	정일섭
백승덕	김재락	박외탁	김홍필	정재덕	서석구
박배현	서석만	송하익	이금용	서억태	구경주
이종원	라채면	최준식	김용조	정근덕	
구자덕	박시주	이영태	김재곤	이춘발	
권진택	이영환	김천우	최호만	박명환	
최상정	지덕출	마경탁	오성택	강상호	

전남지부 25,160개현금 20,000원

이종춘	이형호	안명수	박종인	홍용직	오영석
김남률	이재혁	김규석	양근수	김세중	문태원
이승욱	이팔만	김성규	안상묵	정재기	서자현
주병권	고완주	정판모	김태수	한명수	
이근수	이정수	박세운	김익생	김성식	
이경신	장재걸	이연길	김현상	허균용	
유태식	김동식	나재균	정한철	오영석	
정현식	위장욱	임한근	박선명	최종환	

제주지부 13,860개

고안근	김달홍	고경무	문영봉	김일회	양대하
고성현	이태종	강태호	김두표	김재학	라농장
송종호	최봉환	고경필	유덕윤	장문화	현은준
박순배	유형재	오명국	문원희	오부옥	고창희
강태수	현영기	윤태현	임문보	현조길	노재남
이평우	오행의	송원현	현봉오	김윤홍	양재희
홍정관	한승헌	신인근	김명철	강정문	이영배
현석암	정재섭	박창협	김우석	고병주	
문영훈	김철수	문상진	엄창신	강대은	

자동차제공 : 김두수, 김태열, 고안근, 이영배

고양분회 21,150개

			김문기	한명복	안호율
배종수	홍기명	유홍복	임봉용	유수기	전홍종
윤만호	박성철	왕인식	최창의	강영팔	김재영
장주환	박부섭	허진	김학봉	표윤복	김인기
한상행	최규식	민경달	천오청	이경용	김정유
정집섭	김성길	김성경	서종호	용 선	김상선
송순규	이광의	강금노	양승철	신주영	이봉문
구영일	복근채	정영식	현광혁	박희철	이정한
김벽두	노춘식	김윤원	모종욱	김동의	송정호
한응찬	강서오	김일동	한병부	임석호	이우석

닭고기 돼지고기를 중심으로한 축산 심포지움 개최예정

정부의 적절한 축산진흥시책의 일환으로 축산식품의 영양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조리방법의 보급원활을 위한 축산 심포지움이 오는 3월 25일코리아나호텔(구국회의사당옆)22층 스테이트룸에서 오전10시부터 오후6시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대한양계협회, 한국사료협회, 한국양돈협회, 미국사료곡물협회, 미국유지협회 공동후원으로 열리는 이날 심포지움은 닭고기와 돼지고기의 전반적인 면에 관한 내용인데 연사및 연제는 다음과 같다.

영양면~이기열(연세대 가정대학장) : 「식품 면에서의 닭고기와 돼지고기의 영양가」

한의학면~이 상인(경희대 한의학과교수) : 「한의학적 측면에서 본 닭고기와 돼지고기의 유용성」

조리면~왕 준연(한국식생활 개발 연구회장) : 「새로운 닭고기 돼지고기 조리」

소비자 인식면~김 용환(ASI마케트 리서치 한국지사장) 「닭고기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새로운 인식을 위하여」

일반경제면~김 성훈(중앙대 농대교수) : 「축산식품수급전망과 가격유통에 대하여」

이상이며 각 연제발표이후 질의응답, 종합좌담, 미국대두협회의 특강 순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이날 참석범위는 35개처의 관련기관에 한하여 초청장을 내고 있다.

양계에 실패한 여인에게 삼일농장에서 온정의 손길.

양계업계에서 실패했으나 다시 양계업으로 재기해 보겠다고 굳게 일어선 소박한 女人이 자신의 처지를 알리고 도움을 청하는 호소문을 농수산부에 내어 이 호소문이 다시 본 협회로 이송되어 왔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이보연(삼일농장대표) 씨가 본회에 지원을 약속 하므로서 온정의 손길을 보내왔다.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구래동 13리 교촌61호에서 광산노무자인 남편과 세 자녀와 함께 살아온 林春化 여인은 좀더 알뜰하고 보람있게 살아보고자 지난 75년 10월부터 양계업을 시작하여 억척스럽게 한 발자욱씩 자신의 꿈을 실현시켜 갔으

나 76년 9월 원주에서 돌던 질병이 옮겨져와 1주일만에 전재산인 3000수를 땅에 묻고 절망에 빠져있었다. 그러나 林여인은 상동의 지리적 호조건과 지난 경험으로 미루어 반드시 갚겠다는 조건으로 도움을 요청해 온 것이다.

사협 임시총회 개최

사료협회(회장 : 강태현)는 3월8일 (화) 10시에 사협 회의실에서 77년 제1차 임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안건은 76년도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안)과 당일 총회직후에 최덕기씨(고문)의 부가 가치세에 대한 특강이 있었다.

한풍산업 세미나 개최

한풍산업주식회사(대표 : 최춘송 전화 : 22-1120)에서는 한국사료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 축산학회의 후원아래 3월4일(금) 오전10시~오후 2시에 무역회관 7층 중회의실에서 사료생산자 및 양계가들을 위하여 닭의 콕시듐병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강사 및 내용은 한인규박사(각종 항콕시듐제의 효능비교시험), 장두환박사(닭의 콕시듐증과 스테노롤), Leraillez 박사 (스테노롤의 경제성)이었는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60여명의 양계가들이 참석했다.

신촌사료 종합소득세에 관한 세미나 개최예정

오는 3월19일(토) 신촌사료주식회사(대표 : 강금노 전화32-6356)에서는 축산법 개정에 따라 일반 양축가들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진행방법은 오후1시에 슬라이드, 2시에 양돈질병 기타, 3시에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요령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제적인 종이난좌 대량생산 가능

한국성형제지공업사(대표 : 이종선)에서는 그라스틱난좌를 사용함으로서 발생되던 각종 질병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종이난좌를 생산해 오던 중금년 초에 자동전조실을 가동함으로서 완전 살균 종이난좌를 생산공급하게 되었다.

영남제분 대구사무소 개설

우수한 사료를 생산, 공급하여 오던 영남제분(대표 전화 : 부산68-3782 ~ 4)에서는 3월3일 대구시 동구 범어동 27번지 3호에 대구사무소를 개설하였다.

대구사무소 소장으로는 정사성씨가 발령되었고 전화는 4-3784이다.

녹십자 家兎化백신 개발에 성공

녹십자수의약품주식회사(대표 : 허청섭 전화27-7186~8)에서는 오는 3월말부터 조직배양에 의한 돈콜레라 생독백신인 家兎化백신 개발에 성공하여 시판할 예정이다. 녹십자(株)에서는 지난 76년초 부터 동 백신개발에 착수하였는데 이의 역가가 종전의 백신보다 상당히 높아 돼지의 돈콜레라를 보다 확실하게 면역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CGP2호(인칼슘주사제), 코라이신(산란강화제), 헬밀스과립(구충제), 비타롱ADE, MDV도 3월말부터 시판할 예정이다.

동정

오봉국(서울농대교수)스리랑카 가축인공수정및 번식육종회의에 참석한후 귀국.

농수산부 인사이동

이홍구(낙농과 이용계장에서 가공이용과 과장)

정철용(사료과 유통계장에서 비료과 행정사무관)

김종수(법무담당관실 의정계장에서 사료과 행정사무관)

이무탁(비료과 조달계장에서 가공이용과 행정사무관)

전찬수(가축위생과 위생계장에서 가공 이용과단속계장)

이전및 변경

○주식회사 태경—동방상사는 상호를 주식회사 태경으로 변경하고 사무실을 종로구 신문로1가24번지 (고려빌딩 514호 전화㉚ 6191~3)로 이전.

○양북광업개발(株)—중구 충무로4가 12—1(오성빌딩 303호 전화㉙1871~2)로 이전.

○지산부화장 : 전남 광주시 서구 양산동 209~8 (전화 5—1174) 사무소 : 광주시 서구 동운동 424—2 (전화 5—0388)

인사이동

○ 한성사료

이상전씨(동아농대)영업부 특채

안근식씨(대성산업 경리계장)경리계장으로.

○ 영육농산

김명희씨(가금처리협회)를 채용

○신촌사료—김정인(생산부장) 업무이사로,

박달수(경리부장) 총무부장으로

○서울사료—김영칠(건대졸) 생산기사 입사

○남양분유—송석재(건대 낙농학과 졸)

천안공장 생산과 입사.

○대한양계협회—안남신(산업대학졸) 편집부 특채